



2021 March Vol.102

대입정보매거진

대학입학 정보를 한눈에 받아보세요!



대입뉴스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안내



대입뉴스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부담 경감



대입정보 활용하기 1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Q&A



대입정보 활용하기 2

[어디가TV] 2022학년도 예비수험생 특집,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



연관 홈페이지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언론' 글아글아](#) |
 [선생님 안녕](#) |
 [YIC27 활동수첩](#)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엇길 606(가산동 543-1) 대성다플렉스 A동 23층 Tel. 02-6919-3855
 Copyright 2015. KICUE all rights reserved.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안내

〈작성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대학이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대학은 제출된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 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전국창의수학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TofT),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 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KBSO),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KJSO),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국제뇌과학올림피아드(IBB),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JSO)
외 국 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국제영어대회(IET),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GLEC), 국제영어논술대회(IEEC), 영어글쓰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교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의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교외 수상실적,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 해외 활동실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 허용문자및기호 ~ !@#^()-_+/{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문자표 및 윈도우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자기소개서>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3. <자율 문항> 필요 시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 문항 1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문항 신규대조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3. <자율 문항> 필요 시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 문항 1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자율문항>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부담 경감

연간 약 115만 명의 학생에게 총 3조 8,788억 원 지원 계획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021. 3. 16.(화)까지 접수

-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 및 근로 시간 한도 조정(450시간→520시간) 등 추진
- ◆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520만원→700만원) 및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등 지원 확대 예정
- ◆ 2021. 2. 3.(수)부터 3. 16.(화)까지 입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월 2일(화)에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되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으로,

-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천 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별 지원 규모〉

(단위: 억 원)

세부 사업	2020년 사업비	2021년 사업비	증감
국가 장학금	35,473	34,831	△642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183	3,579	396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289	378	89
계	38,945	38,788	△157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점 추진 방향」

□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 → 520시간)한다.

②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먼저, 202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하여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 장학생) (2020년) 10.9만명 → (2021년) 12만명

(우수 장학생) (2020년) 3.1천명 → (2021년) 4.4천명

○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 원 → 700만 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한다.

○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강화(1회 → 2회)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접수」

□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월 3일(수)부터 3월 16일(화)까지 42일간 진행한다.

○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0.11.24. ~ 12.29.)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화) 18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일시는 추후 확정·안내(4월 중순 예정)

-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지역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02-6322-801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104호	031-8092-8014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033-260-4202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042-250-8752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	043-913-5010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053-210-550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051-503-4125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금암동 663), 건물번호 1-24	063-900-0503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062-527-3986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Q&A



Q. 대교협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폐지되나요?

- 1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고교별로 고교 프로파일 기재 차이가 크고, 학생부 기재 금지 항목 등이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2021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되었습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블라인드 제공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1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고교별로 고교 프로파일 기재 차이가 크고, 학생부 기재 금지 항목 등이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2021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 항목		블라인드 처리 사유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사진	응시원서의 성명, 주민번호와 결합할 경우, 고등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학적사항	학적사항(학교명)	학적사항은 서술식 기재 항목으로 고등학교명을 포함하고 있음
수상경력	수여기관	교내 수상인 경우, 고등학교명이 기재됨
창체활동	봉사활동실적(주관기관)	교내 봉사활동의 경우, 고등학교명이 기재됨

※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와 학생부 학적사항 블라인드 처리로 학생부의 종합적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 편 제와 전입학 여부가 제공되며, 교육과정 편제는 개인별 학생부 제 공시 첨부되어 함께 제공 예정입니다.



Q. 2021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생부) 온라인 제공 생성 범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수시 생성 범위가 기존 '모든 자료'에서 '1, 2학년, 3학년 1학기'의 학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07.30.) 또한 수상경력도 2022학년도부터 1학기당 1개만 제공되는데, 조기졸업예정자(현 고2)는 훈령280조의 적용을 받아 2021학년도부터 1학 기당 1개의 수상 경력만 대학에 제공됩니다.



Q. 2021학년도 전형 평가기준 및 2020학년도 결과 공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험생이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 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위주 전년도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전형평가기준과 2021학년도 결과공개 자료는 7월 중(예정)에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대학정보>전 형 평가기준 및 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양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자기소개서를 개선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는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됩니다. 1번 학업역량과 교내활동 통합(1500자), 2번 공동체를 위한 노력(800자), 3번 대학자율 문항(800자)으로 구성됩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대입정보센터>대입전략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22~2023학년도까지만 유지되고 2024학년도에는 폐지됩니다.

[2022학년도 예비수험생 특집]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1부)

수능최저기준 적용 규모 확대, 특히 서울경신고 김창묵 선생님

구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전형 수(개)	비율(%)	전형 수(개)	비율(%)	
서울	29	58.0	21	42.0	100
인천·경기	24	36.9	41	63.1	100
강원	6	30.0	14	70.0	100
충청	24	48.9	24	50.0	100
대구·경북	23	48.9	24	50.0	100
전라	35	65.2	35	65.2	100
경남	30	60.0	30	60.0	100

2022 대입정보119

활용안내 #2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 -1부-

유튜브 url : <https://youtu.be/h5956bQA0x0>

[2022학년도 예비수험생 특집]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2부)

수능최저기준 적용 규모 확대, 특히 서울경신고 김창묵 선생님

구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전형 수(개)	비율(%)	전형 수(개)	비율(%)	
서울	29	58.0	21	42.0	100
인천·경기	24	36.9	41	63.1	100
강원	6	30.0	14	70.0	100
충청	24	48.9	24	50.0	100
대구·경북	23	48.9	24	50.0	100
전라	35	65.2	35	65.2	100
경남	30	60.0	30	60.0	100

2022 대입정보119

활용안내 #2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 -2부-

유튜브 url : <https://youtu.be/44ubCpsP8Pg>




"국제학"

국제학

국제학 분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열의 언어·문학영역이나,
 일정한 국가나 지역의 문화, 역사, 사상 등을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열의 지역 분야와는 구별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국제관계이론, 국제협상론, 국제정치경제론, 비교정치체제론 등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_국제관계학과_홍찬빈 

학과, 전공 선택 이유

1학년 때부터 '공공외교 전문가'를 꿈꾸며 민간, 문화 측면의 소프트파워 외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정 학과 진학을 목표로 활동했다기보다는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 중 희망 학과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유기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공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 중 'Korean BBQ 홍보하기', 'NBA 현지 해설 따라 해보기', 'CNN 남북 정상회담 생방송 보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며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공부하며 흥미를 느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가간의 관계, 각종 이론과 현장을 공부할 수 있는 국제관계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했던 다른 학과에는 국제통상, 국제무역 계열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원했던 진로의 방향과는 살짝 다른 계열의 학과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진로와 정말 연관이 있는 학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6장의 카드를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에,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신에 강점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교과가 엄청나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공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비교적 많다고 생각했고, 내신을 점수화하여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1차에서 뒤쳐졌던 점수를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준비한 결과, 1차 합격했던 학교에서는 모두 최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수시 박람회 갔을 때 서울시립대학교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입학 홍보대사 분들께서 자세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그때 자신감을 느끼고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나오는 책자와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며,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려운 자료들은 고등학교 입학부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고등학생이 본인의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입시에 관심이 없고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곤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정중히 요청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전공과 관련된 발표,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크게 '학생회 활동, 글쓰기 & 토론 활동, 사회탐구 동아리 활동'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학생회 활동

3년 연속 학급 회장과 학생회 체육부 차장,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운영과 책임,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학업에 소홀해질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마저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절충안을 찾아야 했으며, 모든 행동에도 '총학생회장'이라는 책임감이 따랐기에 더욱 신중히 처리했습니다. 입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입시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어느 학과든 리더십 있는 학생을 싫어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나 교수님께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곁에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진 학생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학생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B. 글쓰기 & 토론 활동

본인의 생각을 쓰고 말한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해본 사람이면 모두 알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이 두 가지에 유독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한 단어를 주제로 생각을 담은 사회 에세이를 쓰고, 동료들끼리 서로의 글을 피드백해주며 사회적인 안목과 글쓰기 능력, 그리고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나갔습니다. 교내 토론대회에도 매년 참여하여 사회 이슈에 대해 그 누구보다 완벽히 숙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한 결과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와 토론은 자소서에도 주요 항목으로 들어갈 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토론의 유형(AP format debate, C.E.D.A 등)에 대한 구체적인 꼬리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C. 사회탐구 동아리 활동

3년간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주된 배경입니다. 매시간 사회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회탐구 동아리 활동은 주체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발표 내용 구성과 피드백 이후 수정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했고,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었으며, 논리성과 순발력이 있는 말하기를 훈련하였습니다. 이는 면접과 자소서 쓰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중관계의 이해와 전망’, ‘학생회의 의사 결정 과정’, ‘고등학교 청소 용역업체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주제로 개인 발표를 하며 국제관계학과의 요구하는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학마다 매주 했던 독서 토론에서는 직접 발제문을 구성하고 생각을 나누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각 대학별 책자들을 정독하고 분석하며 학과별 인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진학을 희망했던 서울시립대가 인재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알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의 경우 외국어, 언어 및 사회 교과와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봉사 정신, 리더십, 소통능력 및 배려심이 있는 학생, 국제평화와 번영 등 국제사회 문제와 국가 발전 등 정치 외교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인재상이었습니다. 이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어떤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쓸지 고민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면, 학교 책자 혹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인재상부터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 요령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 면접이었습니다. 확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숙지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는, 많은 학생이 실수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입니다.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것저것 추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을 기재하는 것은 그 순간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면접 준비 과정에서 본인이 숙지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한 활동을 바탕으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모의면접하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나중에 보고 자가 피드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저도 모르게 했던 눈썹을 움직이고, 다리가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등의 안 좋은 습관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연스레 발성도 좋아졌습니다. 자세와 발성 교정으로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만큼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접 복장입니다. 특히 블라인드 면접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복이 금지되면서 더욱 어떤 복장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 정장에 아빠 구두를 신고 갔었는데, 매우 눈에 띄는 복장이었던 만큼 면접관님들의 기억에 잘 남았다고 생각하여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본인과 어울리는 복장, 기억이 잘 남을 복장을 잘 선택하여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서류 확인 면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시사 문제가 간단히 면접에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A와 B(구두로 예시를 제시함)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 방식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는 서류에는 없지만 정치 외교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는 국제관계학과 의 인재상을 확인하는 데 부합하는 질문이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에서도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한 모습을 잘 어필해야 하지만, 면접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세계사, 법과 정치, 영어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고 온 학생들이 대학 수업을 비교적 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이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인데, 앞의 두 과목은 대학 과목에서의 배경지식을 쌓기에 정말 중요한 고교 교과목입니다. 학과 특성상 영어로 된 수업이나 논문, 기사 등을 읽어야 하는 상황도 종종 있기에 영어는 열심히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관계학의 특성상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그 기반이 되는 쟁점이나 이론을 잘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환경학"

환경학

환경학 분야는 환경문제를 인간 및 생태계와 연계하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화적인 분석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거나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의해 버려지는 오염물의 악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생태복원, 소음, 진동 등이 있다.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김민경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처음부터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하는 EM 환경교육을 받다가 춘천 공지천에 '큰빛이끼벌레'라는 외래종이 발견되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기사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EM의 효능이 유용한 미생물의 정작으로 수질 정화 활동을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 가던 곳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공지천을 다시 깨끗하게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환경운동을 실천하기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실천하고 저희의 시작으로 다른 시민들도 함께 환경운동을 실천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환경봉사동아리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EM 흙 공을 만들어 하천정화 활동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EM 재생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많이 버려지는 쌀뜨물을 재활용하여 EM 발효액도 직접 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EM 관련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탈핵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경을 되살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운동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두고 함께 실천해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환경운동을 고등학교 생활에서 멈추기보다 앞으로 도 실천하고,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환경문제를 알아가며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방법

저는 수시전형인 지역인재로 강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 수시전형에는 교과 우수자, 미래인재, 지역인재 등 3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총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차는 수능 최저점수, 3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미래인재 전형은 1차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차는 면접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생활기록부와 수능 최저점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교는 수시로 두 가지 전형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지역인재전형과 미래인재 전형 모두 환경융합학부에 썼습니다.

저는 수능 과목 중에 수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 약했고,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 풀이만 하는 것도 공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입시를 살펴볼 때 저희 과에서는 최저를 수학과 과학탐구영역만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국어, 영어, 한국사의 공부 비중을 줄이고, 수학과 과학탐구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저는 문제 풀이와 해설을 위주로 공부했지만, 미래인재 1차 전형에서 떨어진 후 수능 최저를 꼭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문제 풀이는 잠시 멈추고 이론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나 시험을 볼 때 몰라서 틀리는 것만이 아니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학원 선생님은 저에게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 문제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문제점은 시험을 보고 난 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며 틀린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제 멘탈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바로 가방에 집어넣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수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수능에서는 실수 없이 문제를 다 풀어 최저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멘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건강관리 모두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미리 파악하고, 수능 전 많은 시험을 통해 고치고 훈련하며 수능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및 대학생활, 졸업 후 진로

전공 수업

저희 학교는 화학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1학년은 생명과학과 일반화학, 일반물리학을 모두 배우지만, 2학년부터는 유기화학, 수질 화학, 분석화학 등 다양한 화학 과목을 배웁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면 전공 수업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반과 화학반으로 나누어져서 과학탐구 1 과목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교양 수업과 전공 수업을 듣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1과목을 배운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저희 과에 오시기 전에 11과목은 꼭 공부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 모든 수업에서 추천하는 필독 도서인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DDT와 같은 농약 사용으로 인해 늘 접하던 새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고한 책입니다. 환경운동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으로 환경에 관한 교과서에도 자주 인용되는 책이니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는 화학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의 정의, 원인, 문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우고,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농업과 관련하여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 수업이 생각보다도 더 어렵고,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전공 수업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도 겹치는 게 많았고, 그 기초를 기반으로 더 세세하게 배우는 거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계속 배워왔던 내용을 2학년, 3학년에도 반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

저희 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토익, 자격증, 논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토익은 550점 이상,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등을 따라 졸업 인증이 가능하며,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졸업논문 발표를 해야 졸업 인증이 가능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3학년에 실험실을 선택하고, 1년 동안 실험실을 다니며 논문 주제를 선택한 후 그에 맞게 실험을 하며 논문 발표를 통해 졸업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국내외 대학원을 진학하여 교육자 및 과학자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소속의 연구직 공무원, 바이오산업 기업체, 화장품 기업, 친환경 농자재 개발회사, 농식품안전 및 환경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이외에도 환경 공무원과 공기업 준비에 유리합니다. 먼저 농업과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고, 전공 수업들이 실제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사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사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전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비와 풍농과 같은 사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이주민 교사(안산강서고등학교)

불안감

2018년 8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2022 대입제도 개편안)과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2022 개편안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확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로 상향 조정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려니 너 무나 막연합니다. 게다가 2024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개인봉사나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것들로 인해 늘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1 학생들의 특징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대체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동아리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고등학교를 먼저 다닌 형제들이 '내신이 중요하다', '학종을 위해서는 활동이 중요하다' 또는 '그냥 수능이나 공부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지만 뭐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도와는 상관없이 주변 친구들의 흐름이나 선배들의 권유로 1학기를 보내고 나면 물려드는 것은 후회뿐 이고 결국 어영부영 1학년을 끝내게 됩니다. 간혹 1학기 또는 1학년 내신이 좋지 않으니 학교를 자퇴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핵심 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덜 흔들리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쓸신잡 1: 학생부 성적 표기 방식 개선 - 진로와 과목 선택 그리고 공부

학생부 성적은 공통과목과 일반과목은 석차 등급으로 표시되지만 진로선택과목(고전읽기, 경제수학 등)은 성취도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면 석차 등급을 의미하는데 전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도 1,2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을수록 1,2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 습니다. 게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100으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진로 선택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모 든 것을 알고 내게 가장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부 성적의 의미는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의 기록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 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내신 점수가 중요하다는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과목 수업시간에 보여준 관심도와 일정 수준의 성취도,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대입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순간 고민이 생깁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진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무관한 학문은 없습니다. 지적인 편식보다는 폭넓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2학년 때 선택이 가능하다면 클러스터나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등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해 보아야 합니다. 꼭 적어서 하나는 아니어도 적어도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생활기록부(현행)〉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알쓸신잡 2: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기록 및 제공 방식 변경 - 일단 뜨겁게 참여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기존에는 모든 수상경력이 대입에 제공되다보니 무조건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 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정도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2023대입까지입니다. 즉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대회라는 것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매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대회는 수상과 상관없이 참여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급적 자신의 진로에 맞는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대입에만 맞추어 지나치게 좁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도전해 보는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학생은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도 수상과 마찬가지로 대입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율탐구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자율탐구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의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자율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하다면 자율탐구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자율탐구활동이 더 중요하고 수업이 덜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업이지요. 그러므로 수업에서 출발하여 자율탐구활동까지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이 외부에서 한 활동은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외부 기관과 연계된 경우에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상, 자율동아리 혹은 자율탐구활동, 봉사활동 자체가 대입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입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유의미한 활동들입니다. 대회를 통해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배운 것 중 궁금하고 더 탐구하고 싶은 것을 자율동아리나 자율탐구활동을 통해 공부하면서 지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알쓸신잡 3: 수능 변화- 벌써부터 고민하지 않기

수능은 대입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년 6개월 뒤에 치를 수능을 대비해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이 공통 문항과 선택 문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선택과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벌써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형 수능으로 치르는 수능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느 정도 인원이 응시하는지,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 예상일 뿐이지요. 하지만 공통과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보다 지금 배우는 공통과목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행 학습은 학업 부담만 증가시키고 실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능은 배운 것에서 출제하지 배우지 않은 것에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와 영어라면 독해력과 이해력, 수학이라면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과 연산 능력 등이 가장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독서, 다양한 실험이나 활동,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는 토론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슬기로운 고1을 넘어서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나를 중심으로 질문하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어떤 활동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가요?” 또는 “선생님, 앞으로 어떤 직업이나 진로가 유망한가요?”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런 대답에 뭐라고 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대입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고, 유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외부의 조건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모든 질문에 ‘나’를 주어로 넣어 만들면 어떨까요? “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난 무엇을 좋아하지?”,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할 수 있지?” 등으로 말입니다. ‘나’가 없는 질문은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정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 있어야 무엇이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 선택하기 바랍니다.

“ 타인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자사고에 재학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준비를 병행해왔기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신만의 생활 패턴 정하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공부의 기본기를 잃기 쉽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공부의 기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활패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국어 비문학 3지문 풀기, 하루에 수학 50문제 풀기, 취침 전 영어단어 30분 외우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지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자신만의 계획을 꼭 지킨다면,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야간 자율 학습에 소홀하게 되더라도 공부의 기본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자신만의 스토리 만들기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미디어'에 대해 갖고 있는 포부와 3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두고 세상, 친구, 나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키워드를 정하거나 특정 목표를 정하면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 라인을 구상하였다면 그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과 독서로 자신의 세트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상

요즈음은 하나의 수상만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토리의 주축이 되는 것을 수상으로 잡으면 중심이 잡혀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와 진로 활동

자신의 학과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그 속에서 이끌어낸 의미를 생기부에 자세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예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사회문제 연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사가 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고 담아내는 등 자신만의 전략을 참신하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 자신이 가장 관심 있거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한 후 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생각이 성장한 과정을 생기부에 담아내면 좋습니다. 저는 학교 환경부에서 2년간 꾸준히 활동하였으며, 대외 봉사활동도 한 달에 2시간씩 3년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독서

자신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스토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침표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부터 심화된 책을 찾아 읽어 자기 생각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③ 자소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3학년 7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활동들로 반짝이지만 각 활동이 연결되어있지 않은 자소서보다는 자소서를 읽었을 때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3년간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소서 작성 이전에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3년간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충분히 성찰해본 후 완벽한 개요가 작성되었을 때 작성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분히 성찰하지 않고 무작정 작성을 시작하면 미사여구로 분량을 채우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크고 단단한 자소서를 위해서는 자기성찰을 통한 개요 작성과 스토리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면접

요즘은 학생의 인성을 파악하기보다 실력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평가하는 느낌입니다. 면접 대비에 가장 좋은 것은 학원이 아니라 학창 시절 모든 과목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면접에서는 수능특강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방대한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고1 사회, 과학 교과서를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시사 키워드를 공부해 면접 시 활용하면 더욱 질 높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팁

① 내신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내신 기간이 학교 행사나 모의고사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신 성적이므로 내신 시험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내용이 어렵거나 졸음이 온다면 연한 색의 펜이나 샤프로 선생님 말씀을 조사까지 모두 받아 적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손을 움직이게 되어 덜 졸리며, 나중에 그 상황이 모두 기억나 복습하기에 수월합니다.



③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수업을 복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습하면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셨는지 자세히 기억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3 수시 준비 성공사례

① 봉사

저는 3년간 봉사 시간이 500시간이 넘습니다. 저처럼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봉사를 통해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는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좋은 기회이므로 꾸준히 질 높은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동아리

자율동아리를 통해 저의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1개의 중앙동아리와 4개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 과학, 문화, 방송 분야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저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4 수능 공부 노하우

국어

저는 국어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능특강을 공부하여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많이 낙심하였지만 국어는 원래 성적이 천천히 오른다는 말을 믿고 끝까지 공부하여 수능 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어 공부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의고사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나오는 문학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전체 줄거리를 파악한 후 총 4개의 사설 모의고사를 전부 풀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높였습니다. 수능 2달 전부터는 6시부터 10시까지 등교 시간을 제외하고 온전히 국어 공부에 투자하여 순 국어 공부 시간을 2시간 채웠습니다.

수학

수학은 학교 일과 중에 모든 공부를 끝냈습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2, 3점 문제를 많이 풀어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충 시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1시간 정도 매일 4점짜리 심화문제나 개념 정리에 투자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영어는 내신공부와 연계하여 연계 문항을 완벽하게 잡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내신기간에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으며, 취침 전 30분 동안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암기하여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탐구

저는 탐구과목을 공부할 때 모든 개념을 꼼꼼히 암기하기 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 풀이, 인강, 수강 등을 위주로 탐구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저는 개념이 탐구의 중심이라 생각하여 혼자서 개념을 수기로 작성하고 완벽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는 수능 날 빛을 발하였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고통을 잘 이겨내어 즐거운 대학 생활이 여러분 앞에 놓이면 좋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① 목표 설정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3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결국에는 텅텅 빈 생활기록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바탕으로 대학별 전형들을 찾으며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다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골고루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능동성을 부여하기에 꼭 설정해야 합니다!

② 내신 관리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교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리 내신 시험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주짜리 플래너를 사용했습니다. 4주 동안 매일 부담되지 않는 선의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설사 하루 정도 계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4주라는 넉넉한 기간을 설정했기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4주 플래너 방법 활용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가로 내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수업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가 쏟아져 나오므로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③ 비교과 관리(생활기록부 관리)

내신 성적을 잘 관리했다면 이제는 비교과를 관리할 때입니다. 비교과에서 유의미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세특/행특/봉사/동아리입니다.



세특

학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생이 뛰어나다고 한들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관리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학생들 각각의 능력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보고서 등을 통해 능력을 증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 교과를 수강한 후 운율에 관심이 생겨 '운율과 힙합 라임의 관계성'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한다면 영양가 있는 세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특

행특은 1년간의 총체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특처럼 특정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폭넓은 경험 이 중요합니다. 창업 캠프, 토론 캠프와 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활동할 자신이 있다면 학생회 임원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은 그 자체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한 봉사 활동이 아닌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봉사 활동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타의로 봉사에 임했던 사람들은 느낀 점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임하면 생활기록부 기록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동아리

동아리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 교내 활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고 학생들은 동아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희망 전공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동아리 활동이 전공 관련이라면 면접에서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겠죠?

위의 활동들에서 공통되는 키워드는 '적극성'입니다. 수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면 다른 학생들과 차별점을 둘 수 없습니다. 본인의 목표 대학과 계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것 잊지 마세요!

④ 지원 전략 설정

위 단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학 지원입니다. 대학 지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파악입니다. 자신이 최상위권 대학에 붙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여 하향 지원하면 너무 아쉽겠죠? 저는 자기 파악을 위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성적분석을 이용했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성적분석은 전년도 합격자 성적 평균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어 대학 지원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자기 파악이 끝났으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향 지원을 주로 할 것인지,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해 하향은 쓰지 않을 것인지 등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지원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이름만 보며 지원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이나 전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팁

①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듯이, 선생님의 수업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앉자리입니다. 앉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의 시야에 자연스레 노출되어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시험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트 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기를 잘하지 못하는 성격임에도 저는 내신 공부할 때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기 위해 손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레 수업 내용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모은 필기는 내신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모두 목적은 수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꼭 수업에 집중하세요!!

② 스터디를 이용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쉽게 지치지 않을뿐더러 모르는 부분을 채우기 쉽습니다. 또한 내신 과목 중 선생님이 나눠진 과목이 있다면 스터디는 더욱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을 자신의 반은 A 선생님이 다른 반은 B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경우, 다른 반 학생과 함께 국어 과목을 공부하면 내신 공부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스터디를 적절히 이용하세요!



③ 고가의 학원 자료에 집착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출제 범위는 교과서 또는 약간의 참고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읽기 자료와 본문이 문제로 활용되는 1순위입니다. 그것들을 3번 이상 읽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든 이후에 참고서를 보도록 합시다.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예시를 활용하여 개념을 완전히 숙지하면 시험 준비는 완성된 것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완전히 숙지하기도 전에 자료에 매몰되어 시험을 그르치지 않도록 합시다.

3 수능 공부 노하우

국어

국어 영역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화작, 문법, 문학 그리고 독서입니다. 학생들은 화작을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 빨리 풀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화작에서 실수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화작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대로 정확히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문법은 개념과 적용,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개념을 열심히 외웠다고 해서 실전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출 문제들을 통해 본인의 개념을 직접 적용하는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문학은 EBS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EBS 연계 교재는 최소한 문학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작품을 미리 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EBS 연계 공부만 안정적으로 되었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 선지 분석을 하세요. 선지 분석은 정답 선택에 효율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독서는 기초적인 독서능력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사설 문제집에 투자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있는 과학, 철학 서적 등을 조금씩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30분씩의 독서가 여러분의 독서 영역 점수를 바꿀 것입니다!

수학

수학은 절대적인 공부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의 회독과 문제 풀이의 습관화가 성적 향상의 올바른 길입니다. 기본서는 계속 보셔야 합니다. 3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해서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21, 30번 문제도 교과서 개념을 통해 풀이를 유도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개념이 자신에게 확립된 것입니다. 수능 직전까지 절대 기본서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풀이의 반복은 개념서의 반복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맞은 문제라고 해서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것은 실력의 유지에서 그치게 됩니다. 맞은 문제도 다양한 풀이를 떠올려보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곱씹을수록 실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절대 한 번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영어

절대평가 이후 영어 영역은 효율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영어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 나누는 것이 대입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계 교재면 수능 영어 공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2등급 이상은 보장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것은 점수 향상에 좋은 것은 자명하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탐구

사회탐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필요한 공부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저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에 개념을 완성하고 여름방학에 문제 풀이 방법을 확립하세요. 그리고 학기 중에 각각 개념, 문제 풀이에 대한 간단한 복습만 얹어준다면 사회탐구로 힘들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팁은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문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윤리 과목 선택을, 암기에 취약한 학생들은 지리 과목 선택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시간의 분배와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고통을 잘 이겨내어 즐거운 대학 생활이 여러분 앞에 놓이면 좋겠습니다.